

문제1

1. 일단 1문단 자체가 제시문 (가), (나), (다)에 대한 요약이 일어나고, 2문단에서 이를 비교하면서 중복서술이 됩니다. 비교 문제에서 따로 요약은 필요없고 바로 비교를 하면서 그 근거로써 제시문의 내용을 서술해주시면 되요.

2. 그리고 “이 관찰을 통해 고릴라들의 행위는 본능적이며 죽음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이 부분은 내용상으로도 어색합니다. 위의 관찰들이 죽음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확실시하지 못합니다. 관찰들은 죽음에 대한 이상행동이고 이상행동이 죽음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제시하려면 제시문 (가)를 통해서 서술해야해요. 답안을 작성했을 때, 원래 알고 있던 답이 기억이 나서 서술한건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결론을 냈는지 다시한번 고민해 봐야할 것 같아요.

3. “ 제시문들은 죽음에 대한 인지가 가능한가의 여부로 ((가),(다))와 (나)로 나뉠 수 있다. ((가), (다))는 인간이 죽음을 느끼는 주체인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지만 (나)는 죽음에 대한 인지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며 그저 동물은 죽음에 대해 인지를 못한다고 추측할 뿐이다.” 앞서 말했듯이 중복 서술입니다.

비교를 하면서 형식상으로 중복서술이 일어났고, 2번에서 결론을 내는 근거도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문제2

1. “죽음에 대한 단어의 완성률은 제시된 표에 나타나며 각 집단이 죽음에 대한 연상이 어느 정도로 가능한지를 측정했다.” 이렇게 표에 나타났다는 무책임한 답안 작성은 피해주셔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주시는게 훨씬 좋아요

2. 실험 결과자체는 좋습니다만,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합니다. 단순히 몇배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수치상으로 언급해주시면 더 좋은 답안이 될거예요.

3. “제시문 (가)의 입장에서 제시문 (라)의 실험결과는 수용하기 어렵다. (가)는 인간이 죽음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단어와 상황을 접한 ‘갑’ 집단의 연상 수치가 ‘을’ 집단보다 더 높게 나와야 한다고 볼 것이다.” 이는 잘못된 대응입니다. 제시문 (가)에 따르면 타당합니다. 배설물이 아닌, 친구와 같이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단어, 그리고 복도와 같이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을은 더 높은 결과를 보였으므로 타당합니다.

4. “ 제시문들을 통해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죽음 자체를 생각하기를 거부하려 한다는 (다)의 관점이 타당해 보인다. 실험결과의 표면적 해석만으로는 인간의 죽음에 대한 관점을 파악하긴 어렵지만 (다)의 관점을 투영했을 때, 실험결과가 인간의 심리와 연관되면서 필연적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논평에선 제대로된 논거서술과 반론 재반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다)가 타당한지 근거가 부족합니다. 3번포인트에서 잘못된 대응을 했으니 당연한 결과이지만 둘다 타당하므로 왜 선택한 논지가 ‘더’ 타당한지에 대한 근거서술과 반론 재반론이 이루어져야합니다.